

“50~60년대 광주·전남문예지 전국문학을 꽃피운 토대 됐다”

이동순교수 ‘지역문학과 매체’ 펴내 호남학보·신문학·시정신 등 조명

“광주전남 문학사에서 문예지(매체)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잡지는 다양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광주전남 지역문예지는 전국의 문학을 꽃피우게 한 토대가 됐습니다. 당시 문예지를 보면 중앙문단과 지역문단이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통적으로 광주전남은 문학과 밀접한 고장이었다. 문학, 문학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5대 광역시 중 문학관 하나 없는 도시가 광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학사를 보면 기라성 같은 문인들은 많았다. 조희관, 박용철, 김현승, 박봉우, 이수복 등은 지역문학을 넘어 한국문학을 이끌었던 문제들이었다. 당연히 문예지 발간도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가 있었다. ‘호남학보’, ‘자유예원’, ‘호남평론’, ‘학생문화’, ‘신문학’, ‘시정신’, ‘영도’ 등은 광주전남에서 발간돼 지역문학을 견인했던 매체들이다. 광주전남에서 발행된 문예지를 통해 지역 문단의 형성과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조선대 이동순(사진) 교수가 펴낸 ‘광주전남 지역문학과 매체’는 근현대사의 부침 속에서 지역 문인들이 어떻게 창작활동을 하고 문학 교류를 했는지 보여준다. 이 교수는 그동안 지역문학에서 빠진 부분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 공백을 메워가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책 발간도 그러한 연장선의 결실로, 중앙문단의 저명한 작가 중심의 연구에서 한 발 비껴난 작업이라는 데서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에서 발행한 문예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서가 전무했었죠. 박사과정 때부터 발표를 받아 모은 자료들과 연구했던 내용을 한데 모아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물리적으로 10년 넘게 걸렸다”는 말에서 자간의 노고가 그려졌다. 필자는 10여 년 전 대학원 박사과정을 함께 공부했던 인연이 있던 터라, 현재 이 교수의 연구 방향을 어렵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말이 10년이었던 자료와의 싸움, 특히 원자료 찾기의 과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고 한다. “매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전국 대학도서관을 빠짐없이 검색을 했어요. 또한 고서점에 명함을 돌리기도 했고 헌책방을 찾아 순례를 했으니까요.” 이 교수는 문예지 ‘시정신’을 만났을 때의 짜릿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우연히 다른 일로 만났던 작가의 아들이 시 정년 ‘시정신’ 전체를 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들었었는데 실체를 확인했다는 생각이 났어요 기쁠 겁니다.” 광주전남의 문예지는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발간됐다. 지역성을 반영한 최초 문예지는 ‘호남학보’였다. 매호 60면 내외로 발행됐으며 국권 회복

과 애국계몽을 주로 다뤘다. 1920년에는 영광에서 시조시인 조운이 발간한 ‘자유예원’이 있었다. 1930년대는 현대문학의 이징표를 세운 ‘시문학’이 박용철 시인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

“1935년에는 목포에서 ‘호남평론’이 출간됐습니다. 박화성, 아무명 등이 작품을 발표했지요.” 무엇보다 이 교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주목한다. 1951년 광주에서 박용철 미망인 임정희의 지원과 김현승과 백원기 등이 주도해 ‘신문학’이 창간된 것. 황순원 등 당대 유명한 작가들이 작품을 투고했기 때문에 잡지의 역할과 위상도 대단했다. 이어 등장한 ‘시정신’은 차범석의 동생인 차재석이 발행했다.

“당시 김현승, 서정주, 박용, 이동주 등이 참여해 창간호를 냈는데 중앙문단 작가들의 참여로 전국적인 명성을 획득했어요. 안타깝게도 같은 시기 종합지 성격을 띤 ‘젊은이’와 ‘호남공론’도 발행했지만 실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1955년 창간한 ‘영도’는 박봉우, 윤삼하, 강태열, 정현용 등이 결성한 동인지로 신춘문예를 거부하고 주체적인 시운동을 전개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영향을 받아 이성부 등이 학생 신분으로 ‘광고시집’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60년에 발행된 ‘영산강’은 재경 향우회 성격도 있지만 종합 잡지에 더 가까웠다. 여기에는 경성도 출신 이은상의 시조 외에도 김한기의 표지와 등이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앞으로도 이 교수는 광주전남 작가들을 소환해 제 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늦깎이로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했던 것도 그런 열망과 무관치 않다.

“공부하는 것이 아직은 즐겁고 기쁩니다. 어느 학술대회 자리에선가 어떤 선생님이 찾아와 지금까지 제가 퍼낸 책을 읽었다며 사인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말로 여기며 정진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80년 5월 스러져간 보통 사람들 이야기

전남도립극악단 ‘봄날’ 공연 13~14일 무안군 남도소리올림터

‘세상이 너를 알지 못해도 너를 기억하고 너를 위해 싸울게’

1980년 5월, 민주화를 열망하며 스러져간 가장 보통 사람들의 가장 치열했던 순간을 그린 공연이 펼쳐진다.

전남도립극악단이 2020년 정기공연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을 선보인다. 13일 오후 7시 30분, 14일 오후 5시 무안군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제작된 이번 공연은 5·18을 다스려온 장르인 ‘오라토리오 집체극’으로 풀어내 눈길을 끈다. ‘오라토리오’는 독창과 합창, 관현악을 전연으로 내세운 극음악으로, 여기에 극적 요소와 국악의 약가무타(樂歌舞打)를 집체적으로 풀어내 신선한 서사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류형선 전남도립극악단 예술감독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비롯해 공정과 정의의 모든 가치는 5·18 영령들의 피 값으로 치른 결실하기에 이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5월 27일, 전라남도청에 남은 그들, 목숨을 담보로 계엄군과 맞서 싸우고자 했던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극이 시

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 춤, 사물, 그리고 웅장한 무대와 조명, 영상 등을 통해 ‘평화의 오감’ 같은 국악의 결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극은 5·18 사건 자체가 아닌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들’에 집중했다. 이름 모를 망자(亡者) 아무 개를 시작으로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엄마, 누이의 일상을 답답하게 풀어냄으로써, 5·18이 더 이상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음을 전한다.

작곡은 영화 ‘귀향’ OST ‘가시리’의 작곡가로도 잘 알려진 류형선 예술감독이 맡았다. 작품은 공연장작그룹 문화행동바람의 김재욱 대표가 연출했으며, 판소리 뮤지컬 ‘닭들의 꿈 날다’ 등을 집필한 김수형 작가가 극본을 썼다.

류 감독은 “해마다 5월 18일이 되면, 낮에는 광주 5·18묘역으로 참배하고, 밤에는 남양 남도소리올림터에서 ‘봄날’을 관람하는 것이 하나의 코스처럼 여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공연은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25일 오후 5시 18분 전남도립극악단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전 좌석 전화 및 방문 사전예매만 가능하다. 관람료 일반 1만원, 대학생·전남도민 등 7000원. 문의 061-285-6928.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필우회 회원전

12~18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필우회(筆友會·회장 김복수) 제 43회 회원전이 12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광주 삼락사에원에서 송파(松坡) 이규형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회원들의 모임인 필우회는 지난 1977년 모임을 결성했으며 2년 후 광주학생회관에서 첫 회원전을 연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거르지 않고 작품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김경수·이기숙·민병길·김선규·정재호·박일구·표형섭·김광호 등 모두 63명의 회원이 작품을 출품했다. 회원들은 송도파의 ‘東瀾梨花(동란이화)’ 이규보의 ‘春日訪山寺(춘일방산사)’를 비롯해 정조대왕, 이백, 고경명, 이이, 서산대사 등 동서고금 선인들의 일이 담긴 글귀를 각자만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서체로 선보이고 있다.

이규형 선생도 최수생의 ‘성심전(聖心泉)’을 찬조 출품했다. 회원들은 송남 서예원, 유당서예원, 화강서예원, 성산서예원 등을 운영하며 또 다른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복수 작 ‘閑中用杜詩韻’

삶과 죽음의 경계 놓인 생명의 소중함

박세영 시인 ‘바람이 흐른다’ 펴내

협적 의사가 코로나 19 시대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시집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내과 전문의(박내과의원 원장)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영 시인은 최근 ‘바람이 흐른다’(문학들)를 펴냈다.

박 원장은 지난해 ‘시와문화’로 등단해 시집 ‘날개 달린 정진기’를 발간하기도 했다.

시인은 이번 창작집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되돌아본다.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돼 있



다. 한편으로 시인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가야 하는 인간의 삶의 자세를 노래한다.

“끝은 어디일까// 바람은 불고 물은 흐른다/ 수채화를 그리는 지구의 숲속// 숨 쉴 틈 없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로 심장은/ 뛰고 견는다”(‘바람이 흐른다’ 중에서)

위 시에는 여느 시인과는 다른 감성과 생명에 대한 섬세한 의식이 깃들여 있다. ‘에너지’, ‘세

포’, ‘심장’은 일반의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시어들이다. 또 다른 시 ‘생’에도 시인의 사유의 지향점이 담겨 있다. “새벽을 깨우는 이른 바람에/ 달린다 물소리 샘솟는다/ 곱상한 물의 일렁임 공주 뜻을 펴고”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시인의 명징한 자의식이 담겨 있다.

황정산 문학평론가는 “박세영 시인의 시들이 보여주는 생명은 우리 사회에서 끝없이 반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어두운 역사와 현실에 대한 저항이고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안의 표현이다”고 평한다.

한편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난 박 시인은 빛고를 광주에서 성장했으며 조선대 의과대학과 한림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출판기념회가 14일 오후 4시 화순 도곡 ‘첫눈’ 카페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100세의료기 나주점

전남 나주시 나주로 211(신북동)
복지용구, 장애인, 보조기, 환자간호용품, 위생용품
병원처방용 건강체크기, 가정산소발생기대어
재활용품 각종 물리치료기, 찜질기전동스쿠터판매및수리
☎ 061)930-1038, 010-8811-9116

법무사 김운회사무소

목포시 정의로26-4법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 서암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가층)
각종 국수와 돈가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 범발로 16-1(자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명서,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 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응추해심상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안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

평화이사소파

북구 안양동 794-13(대자초등학교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톨폼파, 업소용제작 천장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장이수리 및 제작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대연건설

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작·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하나부동산사무소

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매매 상담, 신용 본위
☎ 062)233-5155, 010-3615-5155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새서림떡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장,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

매산철거·삼보소개소

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티븐 특수이동,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장·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